

평택시, 외국 도시와 우호교류 “퍼주기부터 하나”

[단독] 평택시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와 아직 우호교류도시 합의 체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역 초등학교에 1억 원 가량의 물품지원 사업을 추진해 ‘퍼주기’ 논란이 일고 있다.

7일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인도주의 실현과 양 도시 상생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‘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 초등학교 물품지원 사업’을 추진하고 있다.

사업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11개 초등학교에 각각 컴퓨터 7대와 프린터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대행 인건비와 수수료 등 경비를 포함해 총 1억원이다.

시는 오는 9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(10월) 등 11월까지 사업과 정산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.

시의 사업 추진에 대해 “퍼주기” 지적이 나오고 있다. 시르다리아주는 우호교류



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(왼쪽)과 최준구 의원. 사진=평택시의회 제공

협약도 안 한 우즈베키스탄 도시에 물품지원 추진 ‘논란’ 11개 초교에 컴퓨터 구입·대행 인건비 등 소요...1억원 정일구·최준구 의원 “부적절” 지적 ...시 내부서도 의문 몽골 토브아이막 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지원 논란 재연?

도시로 합의 체결이 되지 않은데다, 설명 합의 체결이 되었다하더라도 물품 지원 성

격과 목적도 논란이다. 실제 시의회 일부 의원은 4일 열린 시와

의힘. 사)은 지원 성격에 대해 질의했고 시는 “큰 틀에서 원조”라고 답했다.

이에 정 위원장은 “시에서 원조를 하는 개념이 맞는가. 시장님 생색내기가 아닌가”라고 반문하면서 “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지원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”고 꼬집었다.

최준구 의원(국민의힘, 라)도 문제를 제기했다. “시장님이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방문 때 도움을 준 단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시의 지원 사업이 결과적으로 그 단체를 빛나게(광팔이) 해주는 것 아닌가” 하고 지원 목적 등을 따져 물었다.

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 물품지원 사업 추진은 시 내부에서도 적절성에 의문을 두는 분위기다. 시가 추진하는 대형 사업이 많아 수 백 만원에 불과한 신규 사업이 예산편성에서 배제되는 등 가용 재원이 크게 부족한 현실에서 굳이 해외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, 교류사업이 본격 시작도 전에 물품지원부터 해야 하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.

학교에 컴퓨터 등 물품을 지원하여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양 도시 상생 발전 도모라고 했다.

또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로 “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으로부터 우호교류 추진 중인 시르다리아주 초등학교에 교육용품, 자재, 물품 등 지원 요청을 받아 인도적 우호교류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다”면서 “양 도시 간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
앞서 시는 이와 유사하게 민선7기 출범 직후 우호교류 협약 체결 추진 중인 몽골 토브아이막 도립도서관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.

한편, 평택시의회는 지난 4월 제238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‘평택시와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주 간의 우호교류 합의 체결 동의안’을 통과시켰다. 그러나 현재 양 도시 간 우호교류합의 체결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.

박명호기자